호남예술제 가야금 병창 7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계속된 제 54회 호남예술제 가양금 병창 초등부 단체 부문에 참가한 나주초등학교 학생들이 가야금 선율에 맞춰 꽃타령을 합창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하필 '신종플루' 지역으로

광주과학고 1학년 미국 체험 학습 '불안'

광주 과학고 1학년 학생들이 인플루엔자A(신종플루) '여행유의' 지역으로 지정된 미국으로 체험학습을 떠나기로 해 학부모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7일 광주 과학고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8박 10일 일정으로 광주 과학고 1학년 81명이 미국으로 떠난다. 일정은 미국 뉴욕과 워싱턴, 보스턴 등으로 짜여져 있다.

광주 과학고 학생들은 미국 MIT 공대와 하버드, 예일대 등에서 입학설명회 등을 듣고, 미국 동부지역 내 우수 과학고 등을 방문해 교류 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경비는 1인당 250여 만원으로, 2억여원에 이른다.

그러나, 미국에서 지난 5일 텍사스주 캐머런 카운티의 한 여성(33)이 신종플루에 감염돼 사망하는 등 신종플루가 확산하는 추세여서 이번 체험학습을 놓고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미국의 신종플루 감염자는 지난 4일 286명, 5일 403명, 6일 642명으로 며칠 새 크게 늘었다.

하지만, 광주 과학고측은 이 같은 우려속에도 학생들의 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체험 학습을 떠난다는 방침이다.

한 학부모는 "체험학습의 교육적 효과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신종플루로 사망자가 나온 미국에 아이들을 보낸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면서 "학교에서 미리 결정한 프로그램이다 보니 반대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불안해 했다.

이에 대해 광주 과학고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세계를 보는 안목을 넓히기 위해 지난해부터 미국으로 체험학습을 떠나고 있다"면서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결정한 만큼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하라"

광주·전남대학생농활추진위

광주·전남대학생농촌활동 추진위와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7일 전남대 학생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과 식량주권 확립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고액 등록금 문제는 농민 부모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며 "등록금 1천만원 시대에 농민은 논과 소를 팔고 농협에서 돈까지 빌려 등록금을 마련하지만 자식들은 졸업 후 직장 구하기도 힘든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병상련의 농민들과 대학생들은 연대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며 "정부는 식량자급률 법제화로 농민 생존권을 보장하고, 등록금 인하로 농가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대와 조선대 학생 1천여명은 이날부터 3~4일 일정으로 화순, 나주, 곡성, 해남 등에서 농촌활동을 편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23년만에 불러본 "엄마"

미국 입양 밀러씨 광주 친부모와 감격 상봉

'효음악회' 초청 환영식

7일 광주시민회관에서 열린 '어버이날 효 음악회'에 참석한 엘리스 밀러(왼쪽에서 세번째)씨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친어머니의 손을 다정하게 잡아주고 있다. 왼쪽 두번째는 양어머니인 리넛 밀러씨.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태어나자마자 미국으로 입양된 20대 여성이 23년만에 고국을 찾아 친부모와 감격의 상봉을 했다. 〈본보 4일자 20면 참조·관련기사 12면〉

7일 광주시민회관에서 열린 '어버이날 효 음악회'에 초청된 엘리스 밀러(여·23·Elyse Miller)씨와 그녀의 친어머니는 23년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여느 모녀와 다름없는 다정한 모습이었다.

밀러 씨의 친어머니 H씨는 딸 자식을 버렸다는 죄책감과 설움때문인지 연신 고맙다는 말만 반복할 뿐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이런 어머니의 모습이 안타까운 듯 밀러 씨는 옆에 나란히 앉아 친어머니의 손을 잡아주며 위로했다.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방철호)는 이날 '효음악회' 행사에 앞서 환영식을 열고 모녀의 극적 상봉을 축하했다. 협의회측은 밀러씨를 찾는데 노력해준 양어머니 리넷 밀러(60) 씨에게 감사패를 증정했고, 밀러 씨는 자신을 찾아준 어머니의 목에 꽃을 걸어주며 힘껏 포옹하기도 했다.

밀러 씨의 친어머니는 "한순간도 내 딸을 잊지 못했다. 찾고 싶었지만 여건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만나게 되니 꿈만 같다"고 말했다.

밀러 씨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중나온 친부모님을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며 "이틀 동안 부모님과 많은 말을 나누지 못했지만 함께할 수 있어 너무나 행복하다"고 밝혔다.

밀러씨와 친어머니와의 아름다운 동행엔 밀러씨의 양어머니 리넛 밀러씨가 함께했다.

리넛 밀러씨는 "밀러가 3살 때 입양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한국 친부모를 찾아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친부모를 만나 즐거워는 하는 밀러의 모습을 보니 나 또한 기쁘고 행복하다"고 말했다.

밀러 씨는 1986년 광주의 사회복지시설 충현원에서 미국으로 입양됐으며, 2006년 광주에 거주하는 밀러 씨의 친부모가 충현원을 방문해 딸을 찾아줄 것을 부탁했다. 2년여의 수소문 끝에 지난해 6월 미국의 입양기관으로부터 어엿한 대학생이된 밀러 씨의 소재가 확인됐고, 밀러 씨는 지난 5일 양어머니와 함께 한국을 찾아 친부모와 극적으로 상봉했다.

밀러씨 일행은 광주에 머무르는 동안 조상 산소에 성묘하고, 5·18 묘역 등을 둘러본 뒤 10일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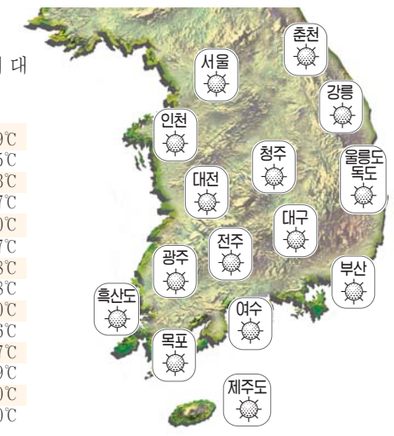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35분 / 해짐 18시 44분 — 달뜸 19시 24분 / 달짐 04시 30분

孝心만큼 뜨거워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대체로 맑겠다.

광 주	맑음	12/29℃
목 포	맑음	12/25℃
여 수	맑음	15/23℃
완 도	맑음	13/27℃
구 례	맑음	8/30℃
해 남	맑음	9/27℃
장 흥	맑음	9/28℃
고 흥	맑음	10/28℃
순 천	맑음	13/30℃
영 광	맑음	9/26℃
진 도	맑음	10/27℃
전 주	맑음	11/29℃
남 원	맑음	8/30℃
흑산도	맑음	13/20℃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0.5m
먼바다	서~북서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서	0.5~1.0m
먼바다	서~서	0.5~1.0m

	밀물	썰물
목포	01:30	06:43
	13:30	18:47
여수	08:13	02:16
	20:53	14:15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9(토)	10(일)	11(월)	12(화)	13(수)	14(목)
날 씨						
최저/최고	13/30	15/29	16/26	16/24	15/26	14/26

'한반도 온난화' 세계 평균 2배 빨라

한반도의 온난화 속도가 전 세계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7일 기상청이 국립기상연구소의 연구결과를 모아 발간한 자료집인 '기후변화이해하기Ⅱ-한반도 기후변화 : 현재와 미래'에 따르면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은 1912년부터 2008년까지 96년간 1.7도 올랐다.

비슷한 기간(1912-2005년) 전 지구 평균기온이 0.74도쯤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온난화 속도가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셈이다.

기상청은 이러한 기온 상승의 30% 가량은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결과로 분석했다.

기온상승에 따라 한반도의 기후가 아열대화하는 경향도 지적됐다. 겨울이 지속되는 기간은 22~49일 가량 짧아져 봄이 더 일찍 찾아오는 반면 여름은 13~17일 가량 길어졌다.

기상청은 지금 추세대로 지구온난화가 계속된다면 2100년께에는 제주도와 울릉도, 동해안, 남해안 등 지역에서 겨울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5·18 테마 지하철' 12일 농성역 발차

7월 15일까지 운행

5·18민주화운동 29주년을 기념해 인권과 권리, 저항의 메시지를 담은 '5·18 테마 지하철'이 오는 12일 오전 11시 농성역에서 발차식을 갖고 7월 15일까지 운행에 들어간다.

5·18기념재단과 광주시도시철도공사가 공동 운영하는 올해 5·18 테마 지하철의 주제는'2009518-마음에 새기다'로, 전시 공간은 차량 출입문 및 바닥, 유리창, 벽면, 네 번째 칸 전체 등이다.

출입문과 바닥은 '오월의 햇살', 유리창은 '마음속에 그리는 변화', 벽면 포스터는 '역사는 오늘이다', 네 번째 칸은 '우리는 지금'등을 주제로 구성된다.

5·18기념재단측은 "민주·인권·평화를 위해 싸우고 활동하고 있는 세계 운동가들의 메시지와 사진, 대한민국 인권의 현주소를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꾸몄다"고 밝혔다. 이번 테마지하철에는 김태성, 나경택 등 사진작가 6명, 고강철 등 15명의 인권 포스터 작가, 디자인업체,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등이 자료를 제공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